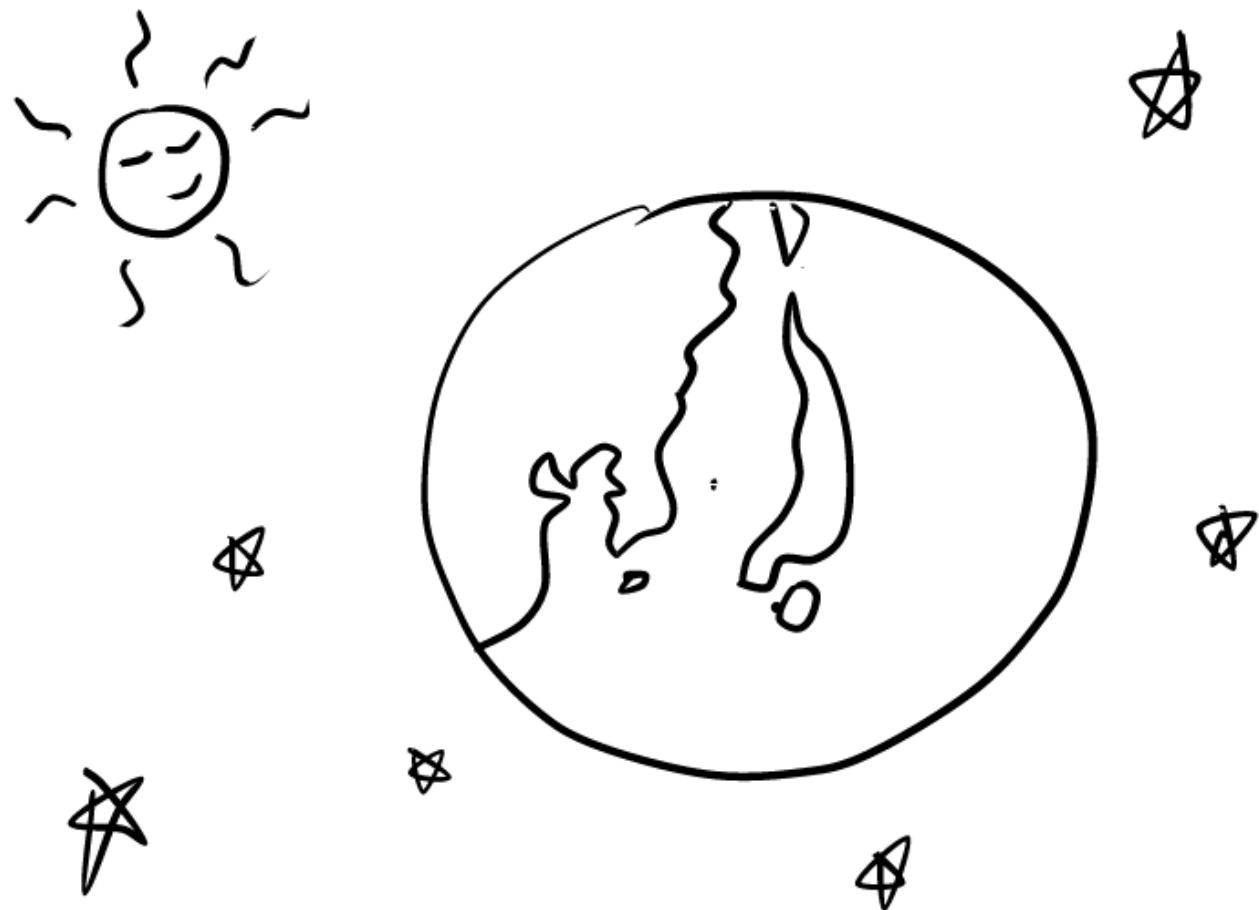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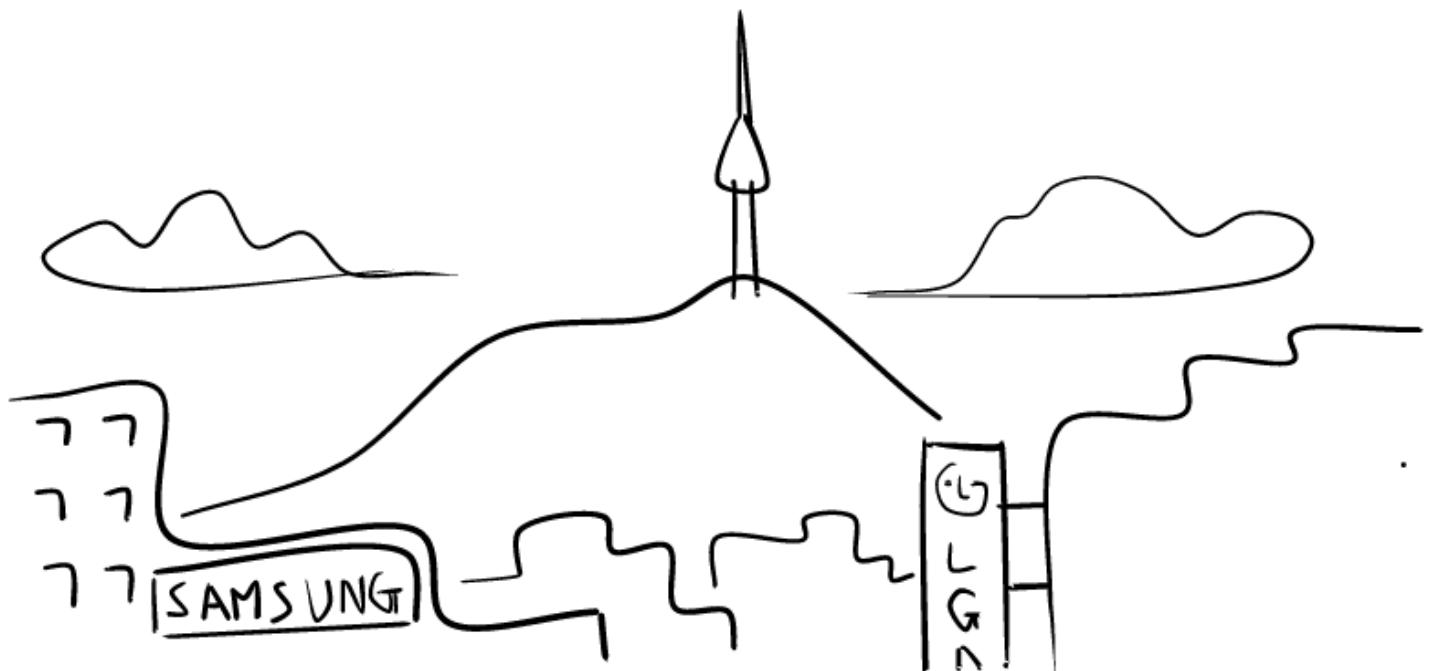


# 평행우주의 또 다른 지구



당신의 지구와 이 지구는 거의 똑같습니다.

다른 건 딱 하나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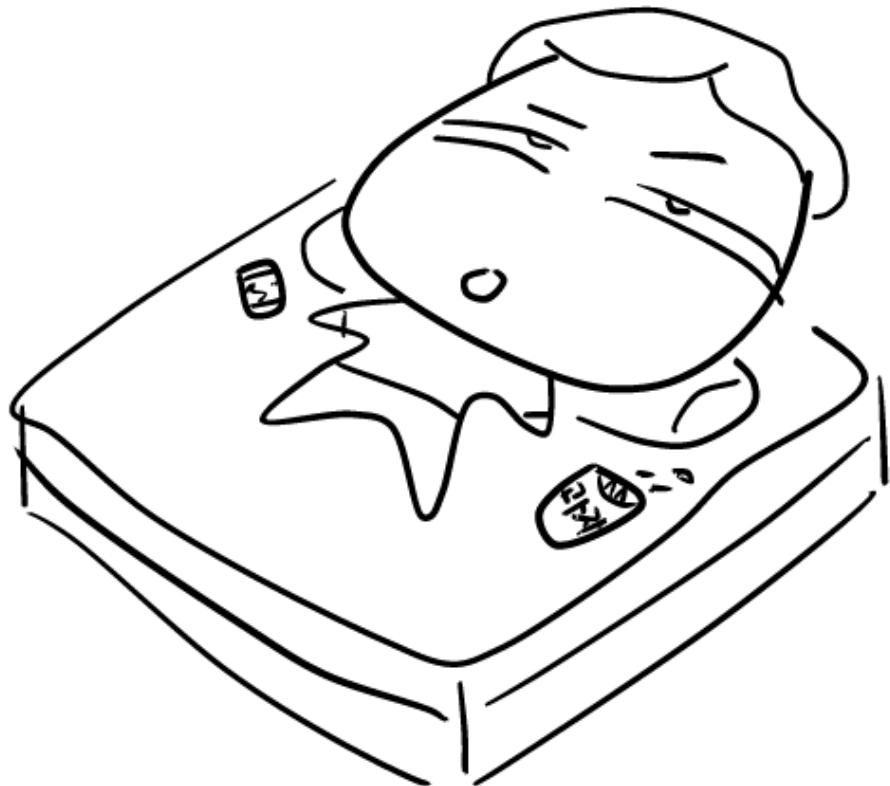


# 가끔

아주 특별한 여행을

할 수 있다는 것이죠.

평화로운 일요일 오후,  
박희수씨는 잠들기 일보 직전입니다.



그런데 갑자기...

누군가 창가에 나타났네요.



당신은 특별한 여행에 초대되었습니다.

간단한 임무만 수행하면 여행이 공짜!



전 안내를 맡은 스팅크스



그러면 이번 여행에 대한  
수수께끼를 읽어볼까요.



마음이 있는 곳인데 마음이 없고  
생각이 있는 곳인데 생각이 없고  
내가 있는 곳인데 내가 없다.

이곳은 어디일까?



# 시간의 대륙 원정대

남세균은 남설록?



다른 차원의 세계인 시간의 대륙은  
시간 순서대로 각종 기념물과  
전시관들이 늘어선 곳입니다.

138억년전  
우주탄생국립공원

45억년전  
지구탄생기념박물관



## 갑작스런 순간이동에 놀란 박희수씨





할아버지가 됐어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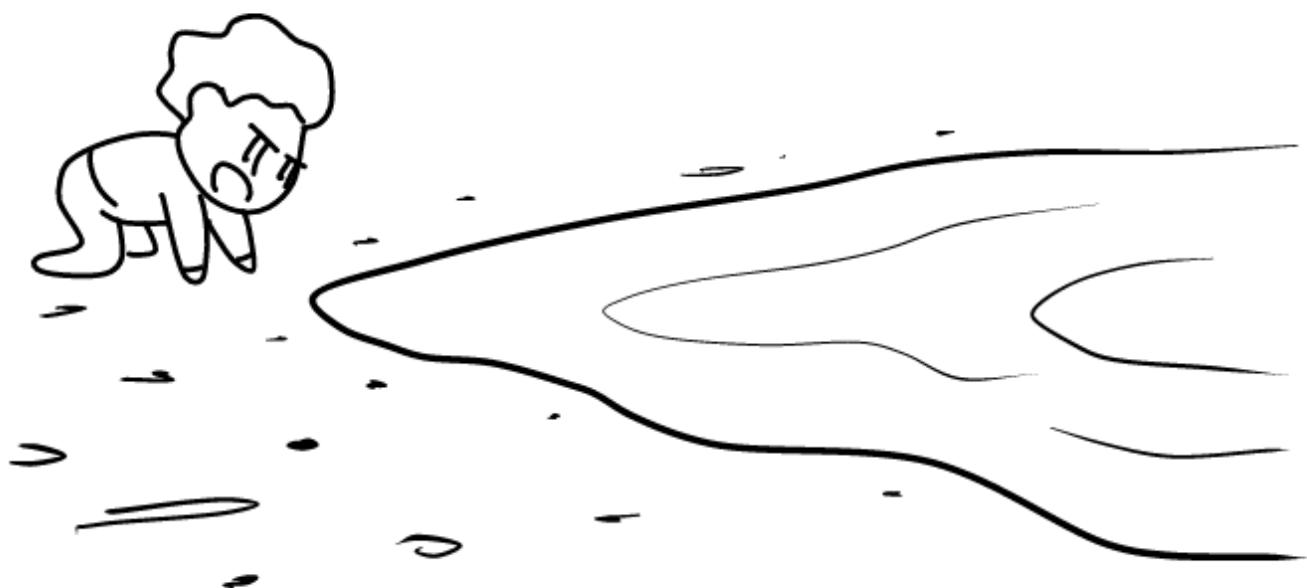


이거 무슨 여행이야. 망했어.)

으아앙 ~~~~~



나 다시  
돌아갈래!  
스피크스 어딨어!



어하~  
물고기 다 도망가거나~  
조용히 좀 강자~



늙어보이는 것뿐이니까 걱정마

여기가 시간의 호수라서 그래



여행객인 거 같은데 반가워

난 '시간' 이야

내가 이 시간의 호수를 만들었지.



# 잠깐!

시간의 대륙에선 단어들이  
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움직입니다.



그리고 예술가가 되어 자신들을 위한  
기념물을 만들며 살아가죠.



내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 
이 호수를 만들었었지.  
꼭 구경하고 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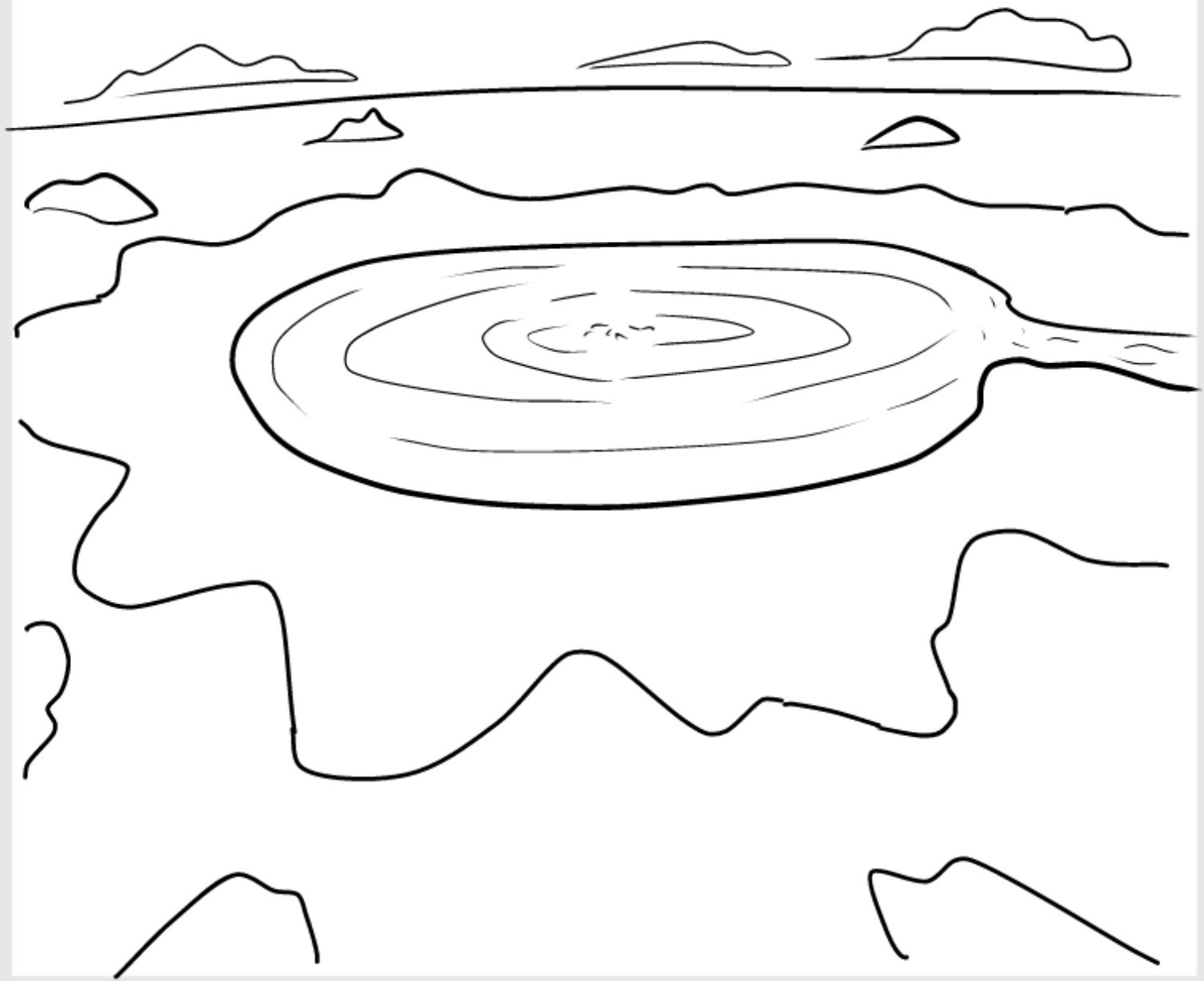


급할 거 뭐 있어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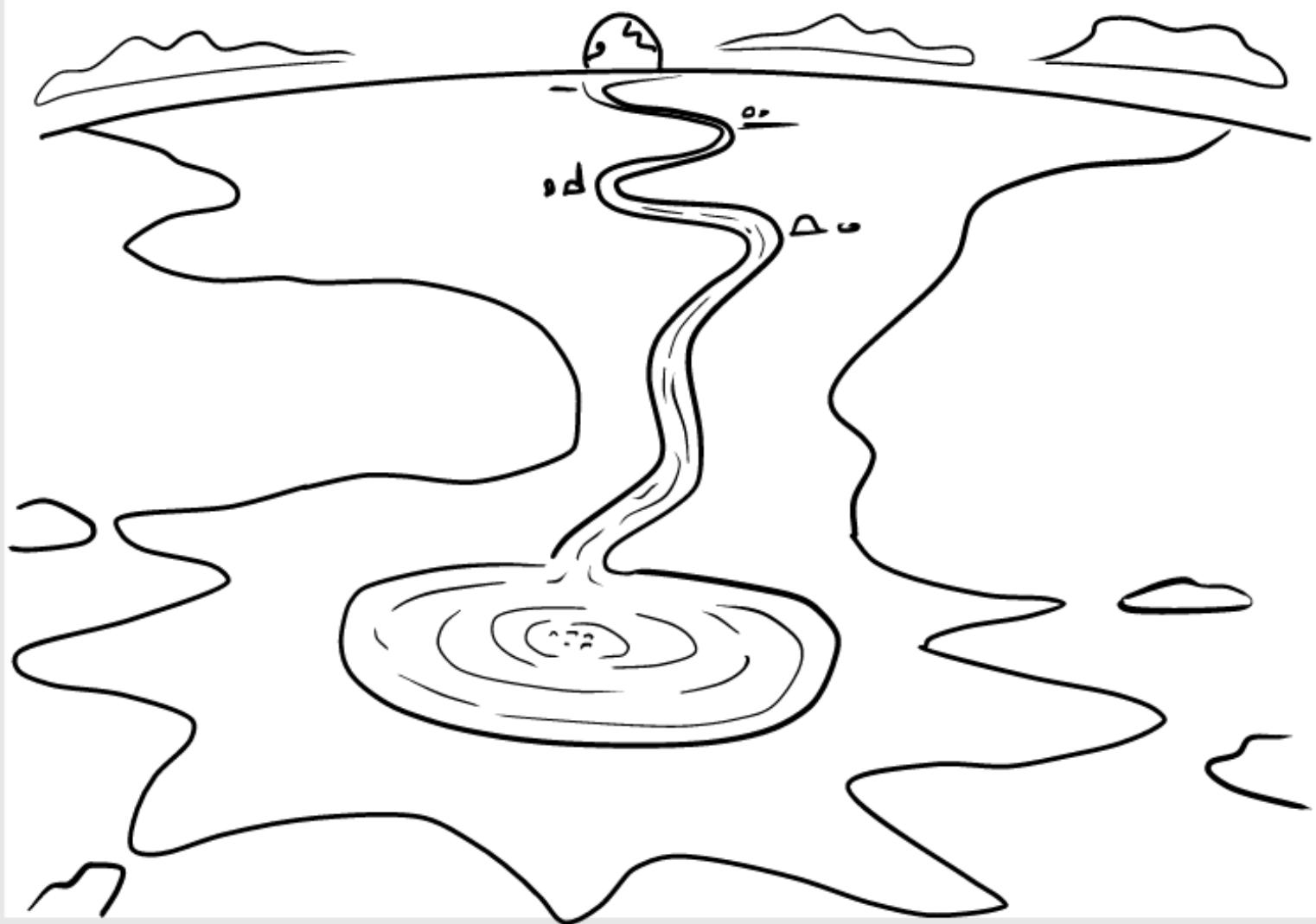
산책이나 같이 하자구.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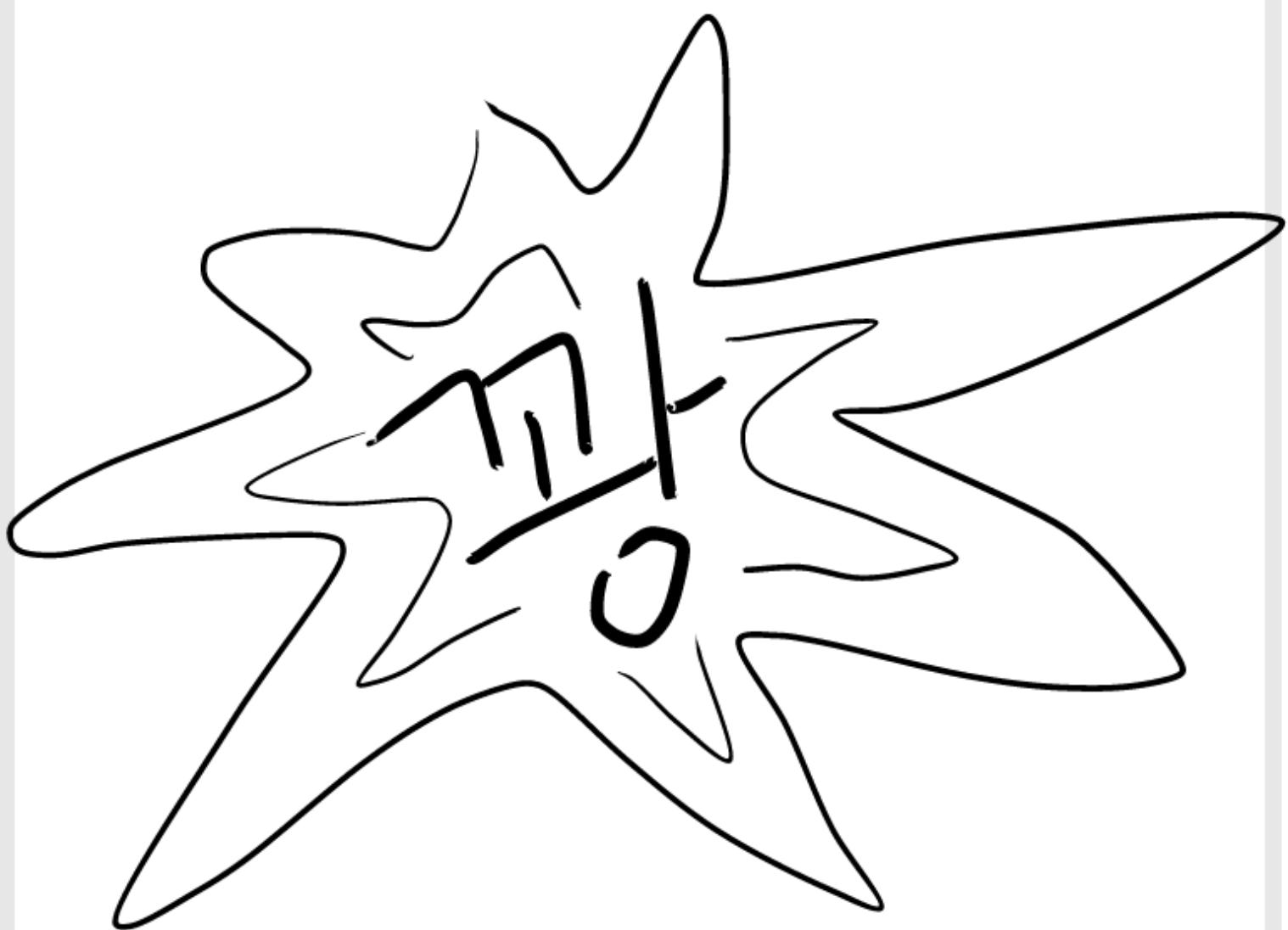
## 우주탄생국립공원에 위치한 시간의 호수



저기서 나오는 물이 시간의 강이 됩니다.



시간의 호수는 빅뱅을 통해 우주가 생겨났을때



시간도 흐르기 시작했음을 상징하죠.



샘에서 솟아난 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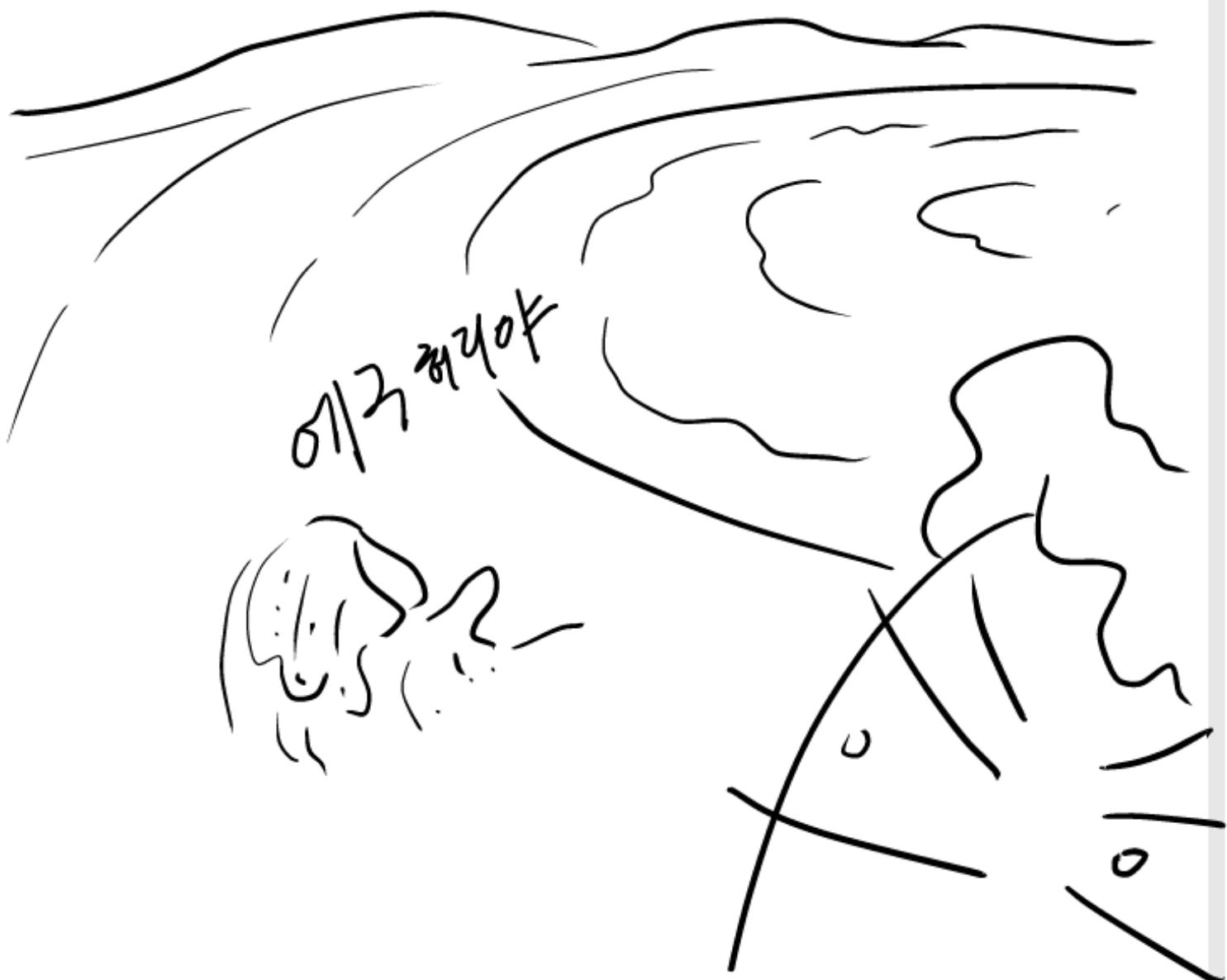
빅뱅이 일어난 후 시간은 미래를 향해 흐릅니다.



Хорошо



## 이번엔 모래속에서 등장하는 스핑크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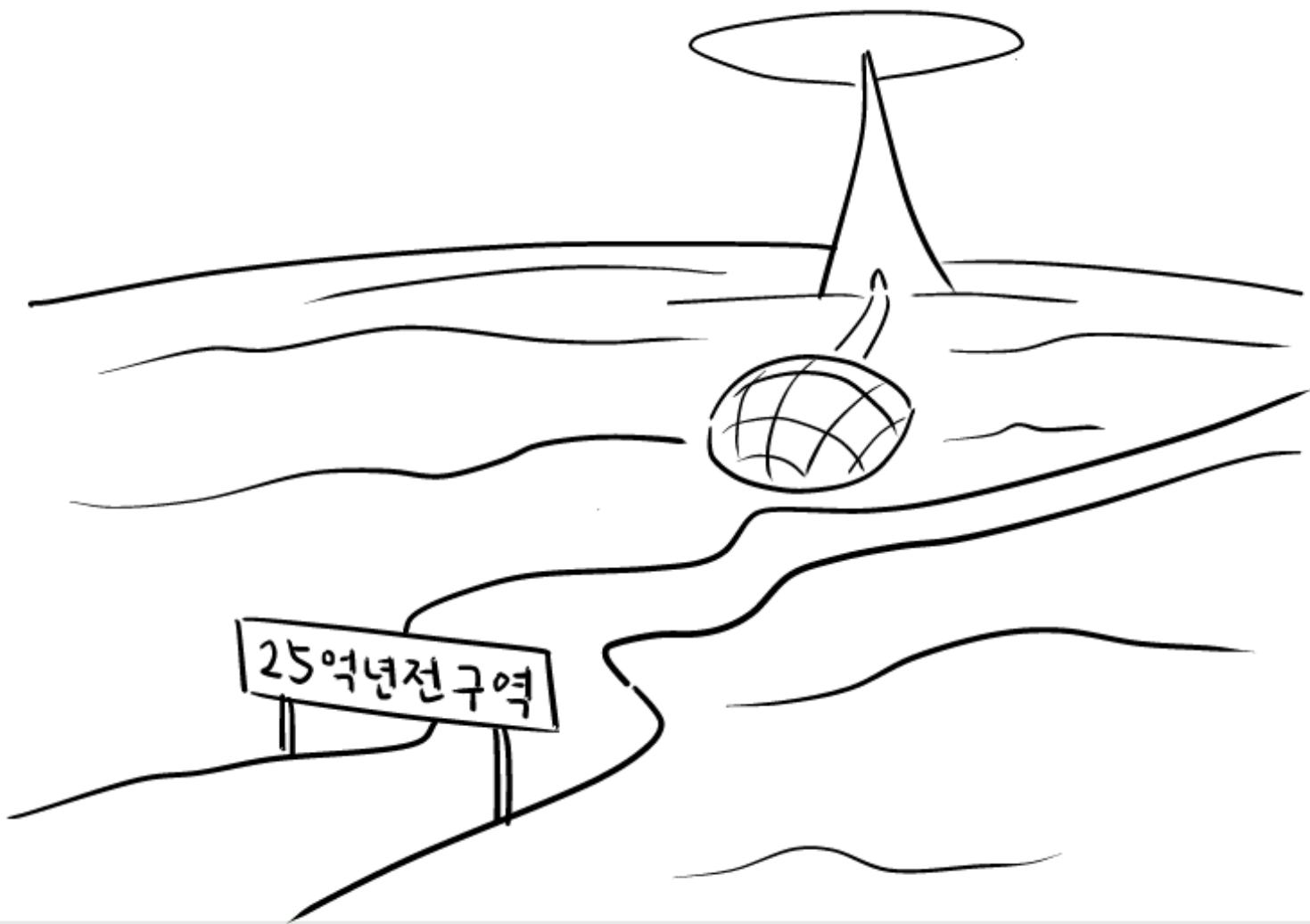


구경 잘 하셨습니까

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볼까요?



두번째 여행지, 25억년 전 구역에 위치한  
남세균 기념관





여긴 또 어디야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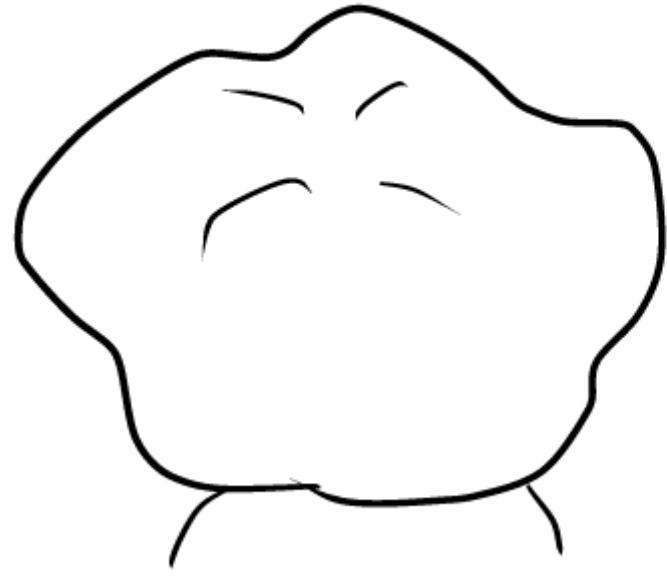


꺄! 숨막汇...  
꺄!





자문으로!





헉헉... 죽는 줄 알았네...



아이고~ 무산소 체험하느라고 생하셨네  
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해해줘요



반가워요! 대혁명가!!

남세균이라고 합니다.

혁..명..?  
세...균...?



거봐... 모르잖아!

어떻게 날 모르냐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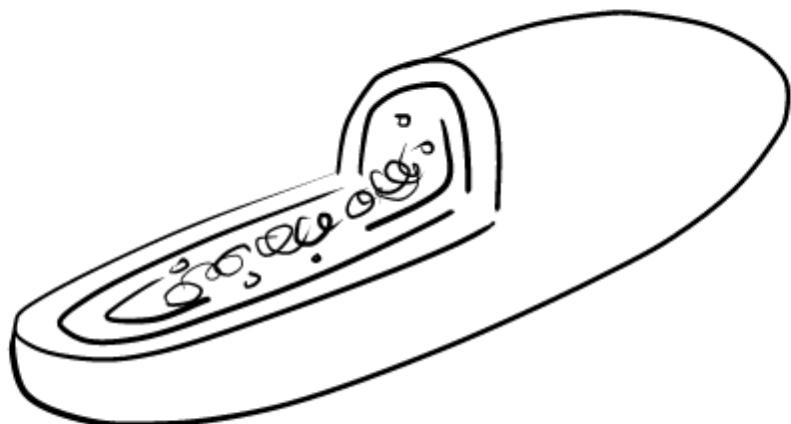
내가 너보단 유명해야되지 않나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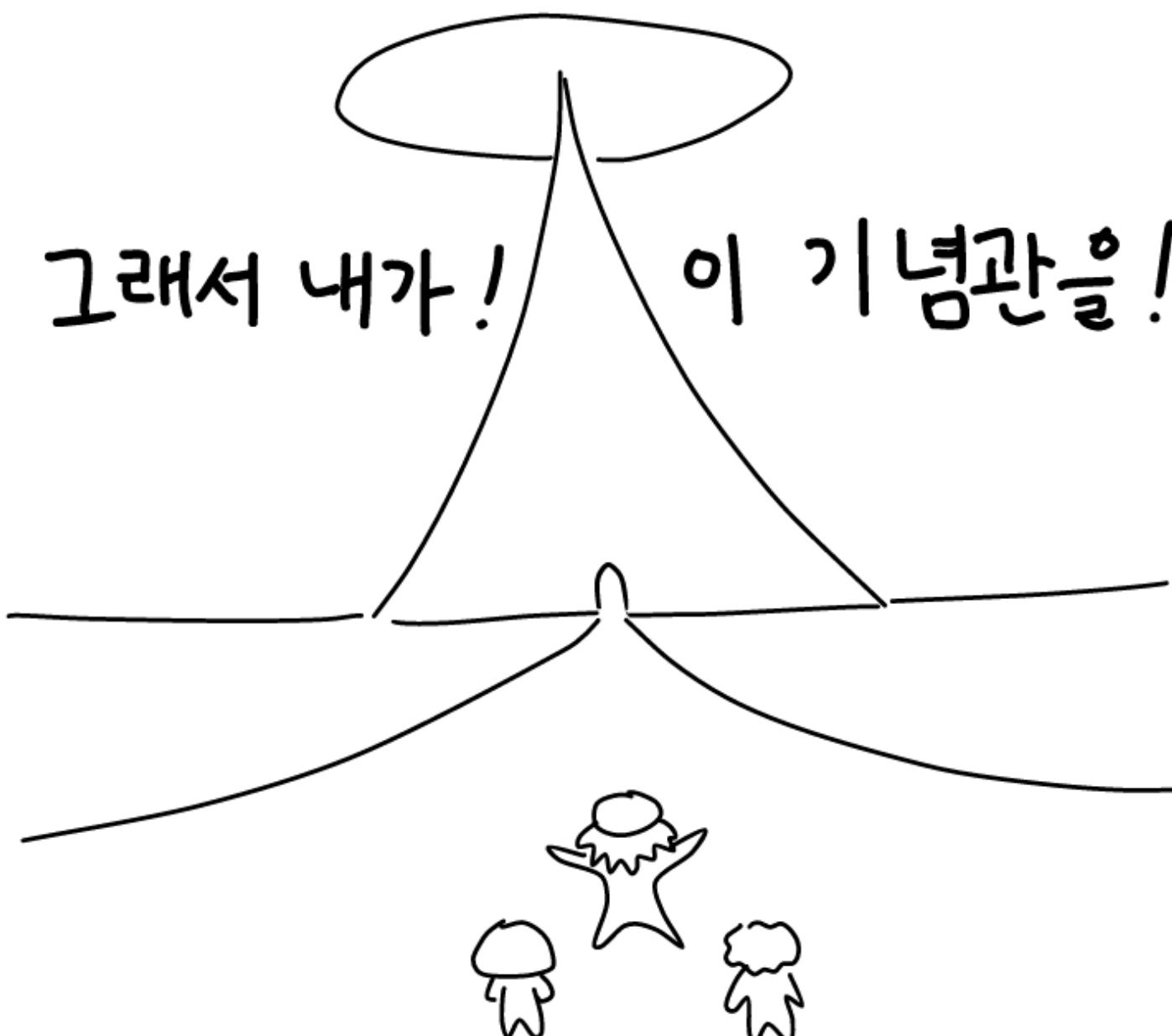


# 또 잠깐!

남세균이란?  
*Cyanobacteria*

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남색세균  
엽록소를 가지고 있음





그래서 내가!  
이 기념관을!

만들 수 밖에 없었지.



## 남세균 혁명 기념관의 첫번째 전시물



삼각형은 광합성을 상징합니다.

그 유명한 광합성의 발명가가 남세균이거든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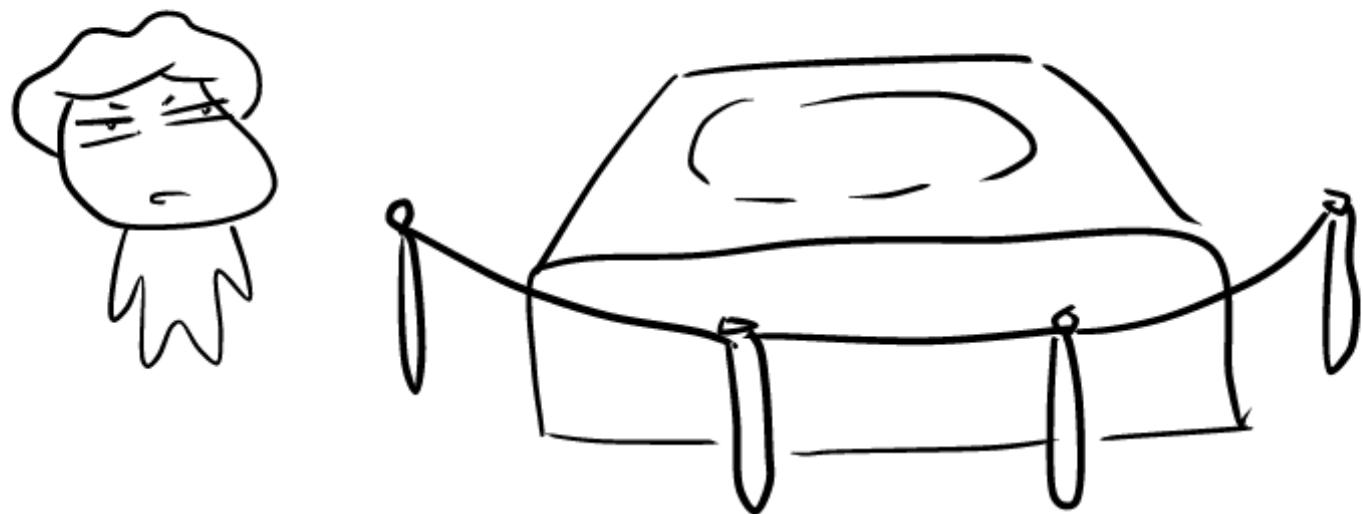
지구에서 가장 흔한 것 세가지

공기와 물, 햇빛으로

소중한 영양분을 만들어낸거죠.



## 두번째 전시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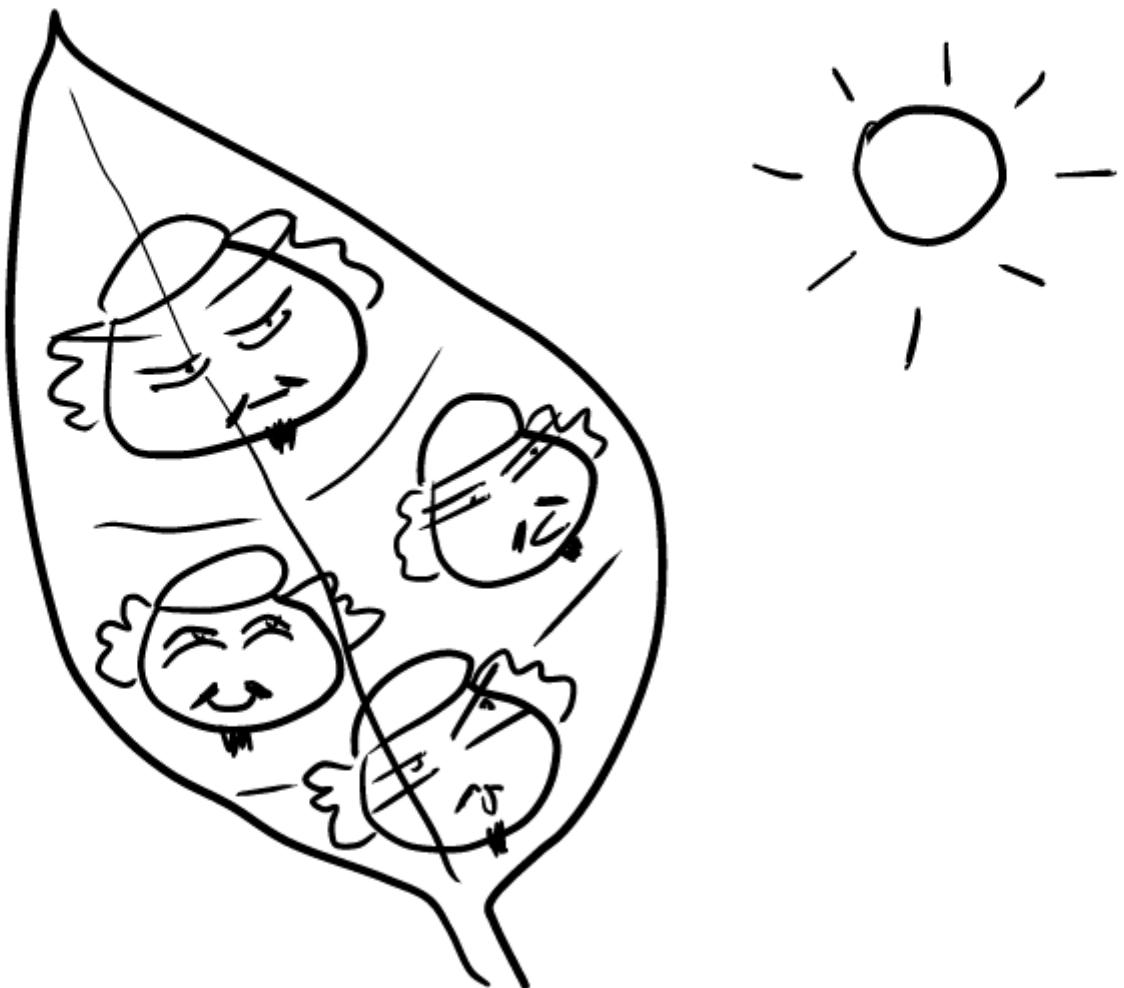


주춧돌은 생태계의 기초를 의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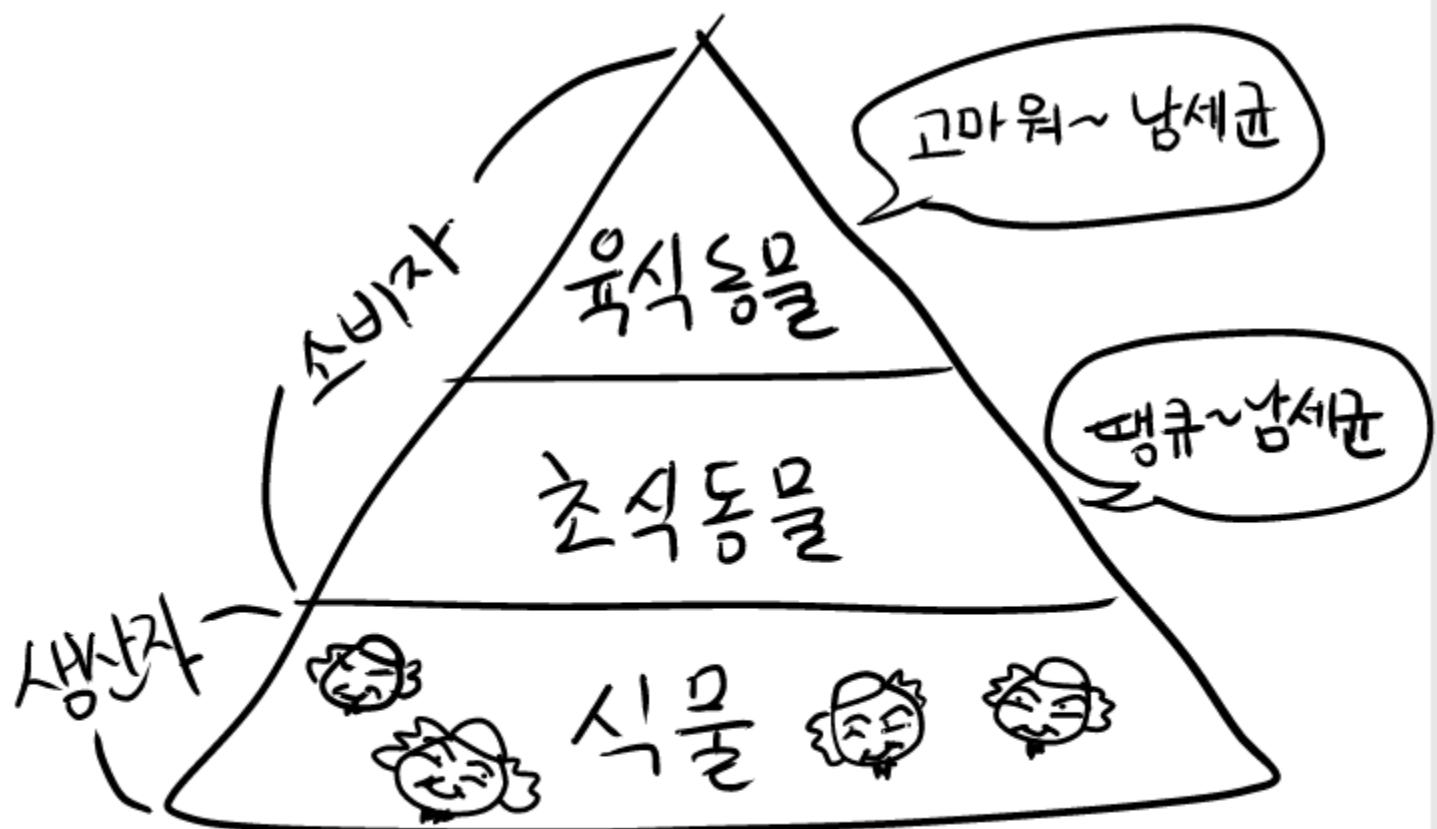
내가 없으면  
생태계가 무너지지



왜냐면 남세균이 나중에  
식물 속의 엽록체가 되거든요.



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생산해내고  
그 영양분으로 생태계가 먹고 사는 것은  
남세균 덕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



## 세번째 전시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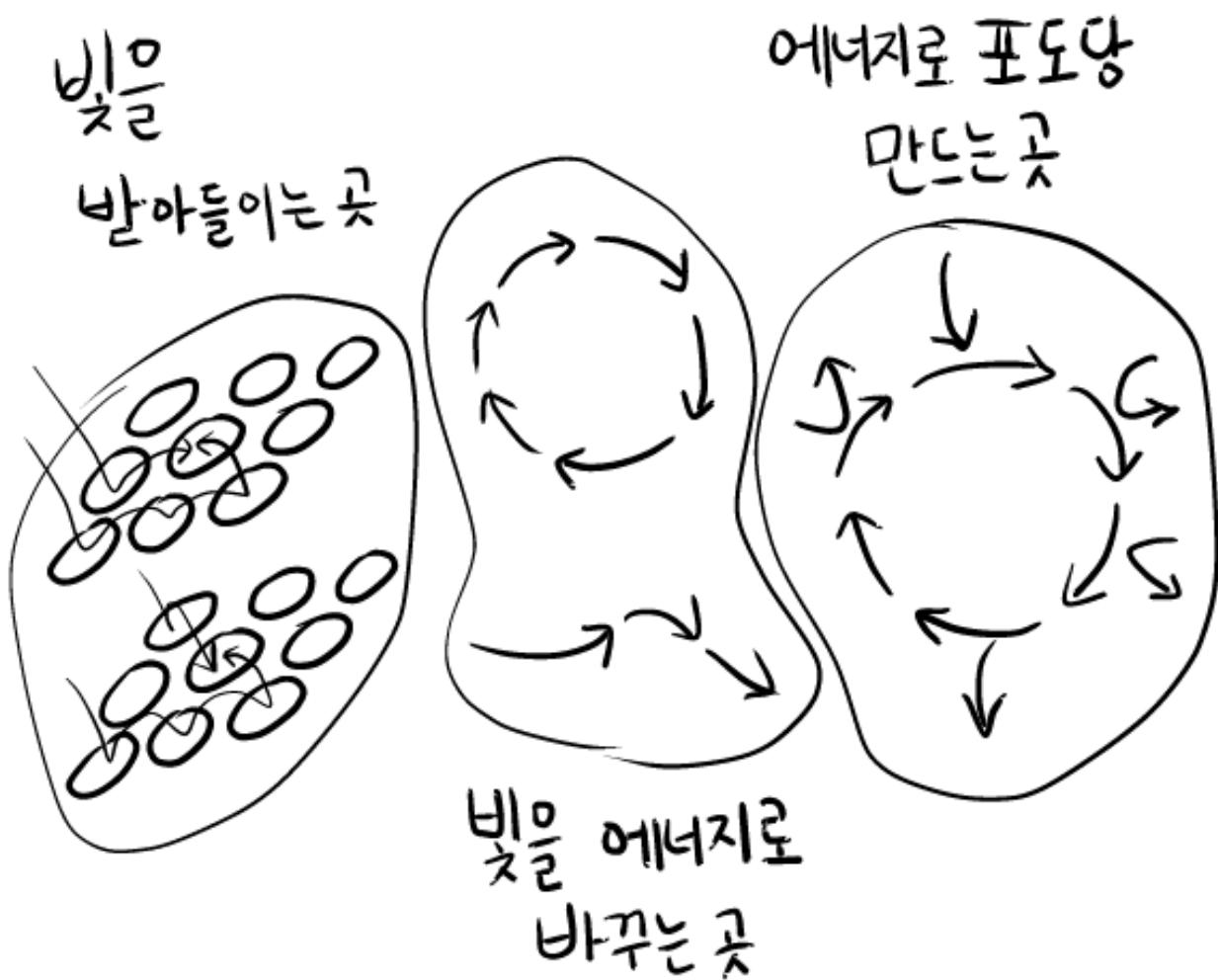
자동차는 광합성의 복잡함을  
상징하는 전시물입니다.



사실 광합성은 마치 자동차처럼  
여러개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 
아주 복잡한 과정이죠.



# 초간단 대~중 요약한 광합성



그 과정들 중에서 물을 분해하기도 하는데  
그때 나오는 부산물이 바로 산소입니다.



산소는 매우 중요하죠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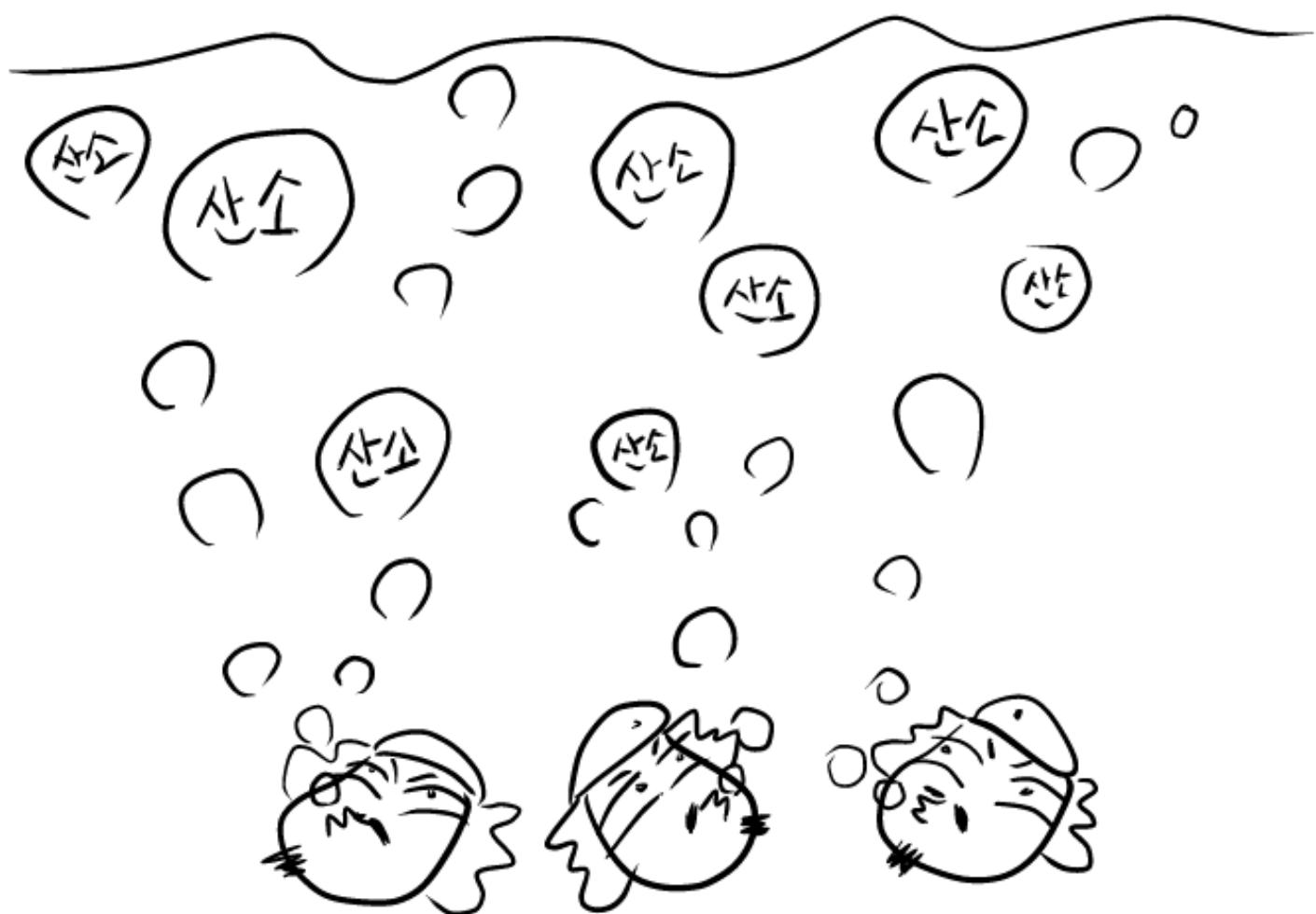


그런데 25억년 전 지구엔 산소가 없었어요.  
게다가 암모니아도 있어서 냄새까지 났을 겁니다.

이산화탄소      수소  
암모니아      메테인



없던 산소를 만들어낸 것이 남세균이었죠.



새롭게 생겨난 산소 덕분에  
정말 세상이 확 바뀌게 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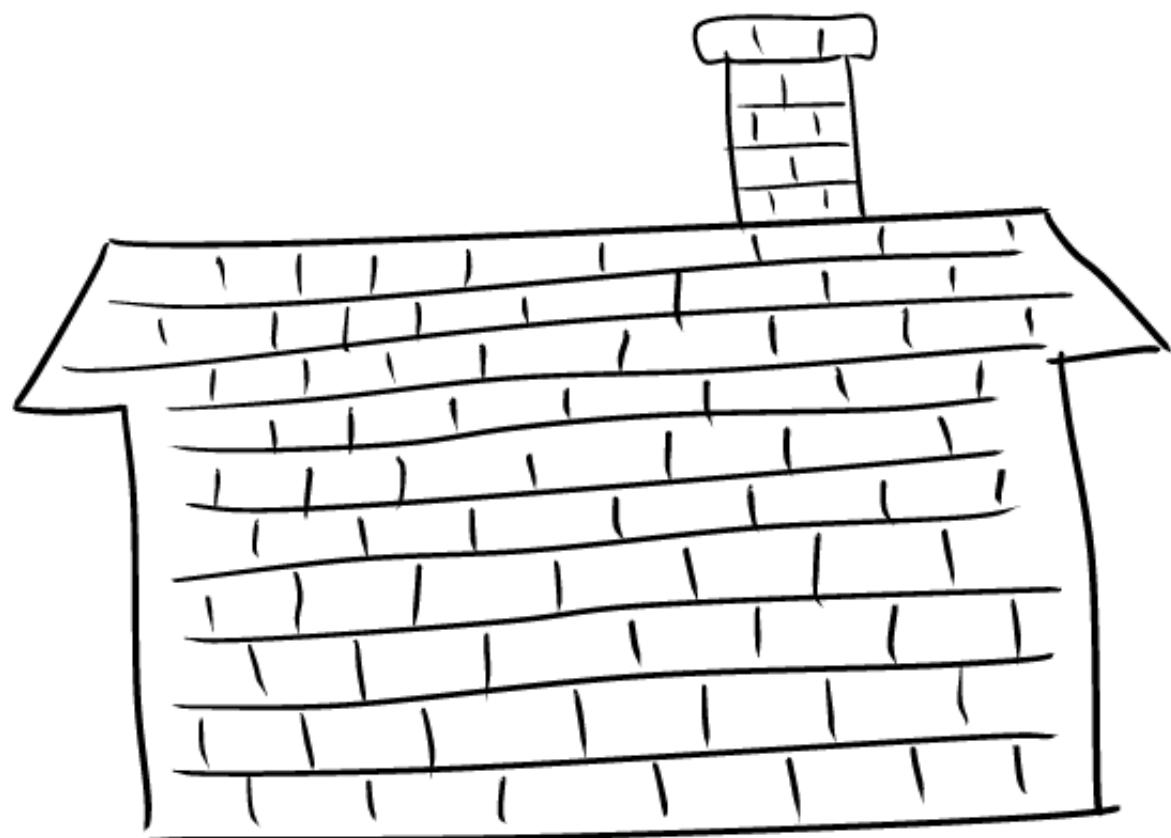
## 네번째 전시물



뭐야 첨성대?



마치 벽돌들이 쌓여 집이 만들어지듯



모든 동물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.  
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뿐이죠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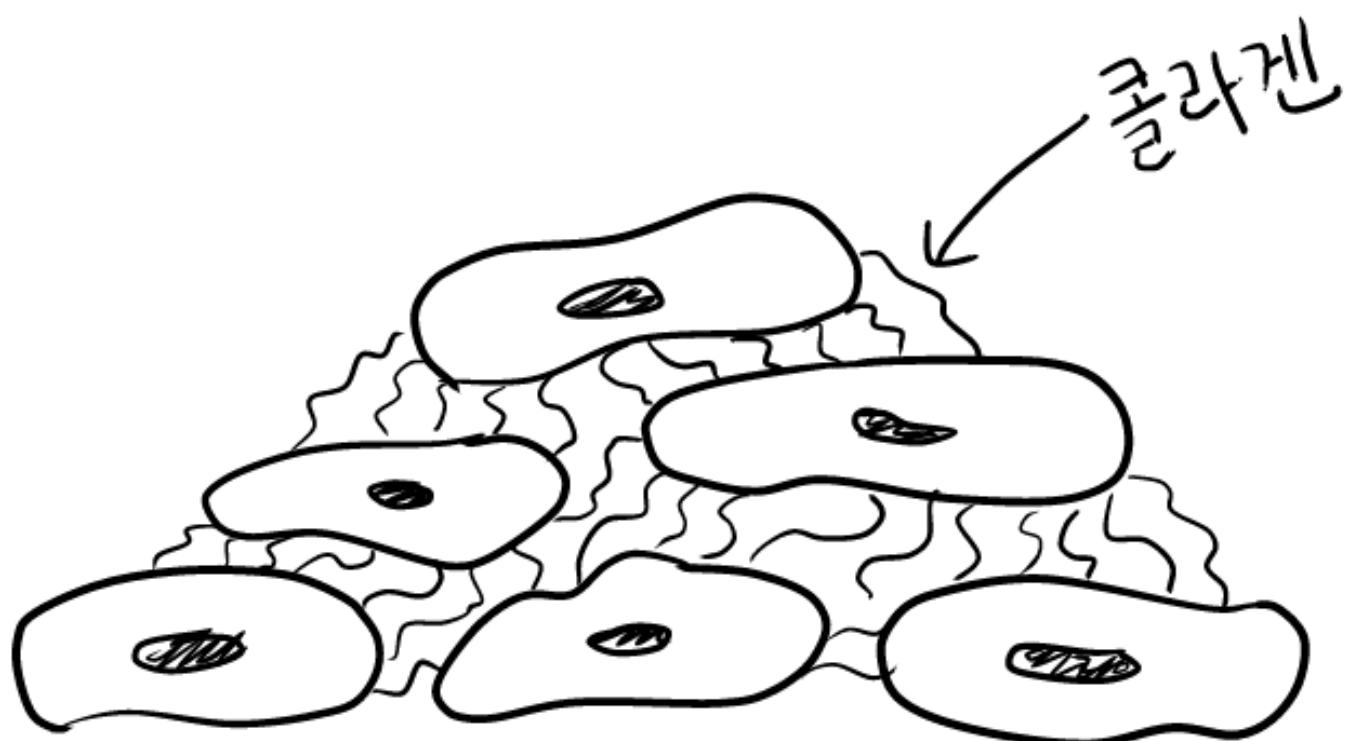
그런데 벽돌로 집을 만들때

벽돌을 튼튼하게 쌓으려면

시멘트가 필요하듯



세포들 사이엔 콜라겐이 필요합니다.



그런데 콜라겐을 만들때 꼭 필요하게 산소죠



남세균이 없었으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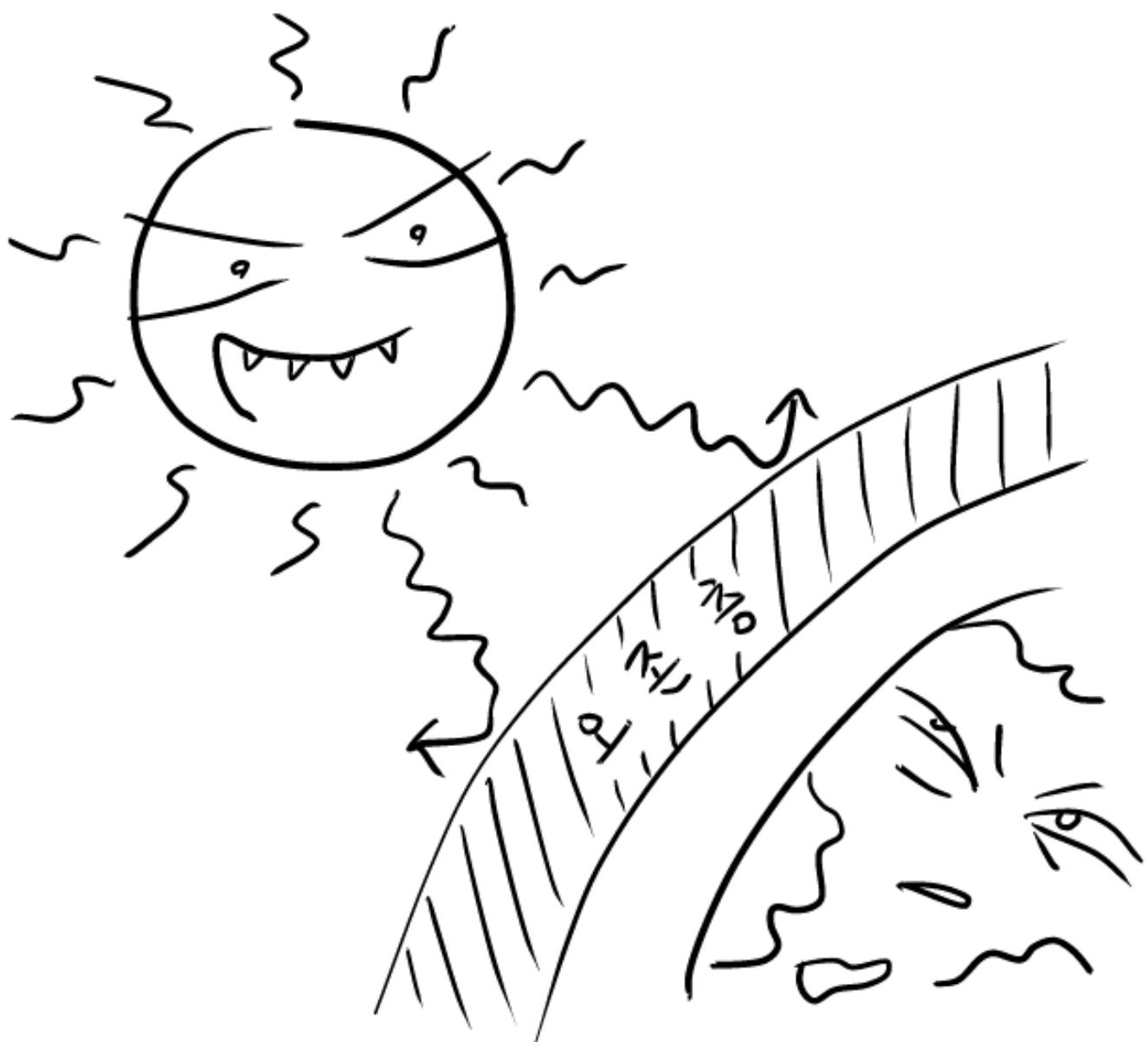
동물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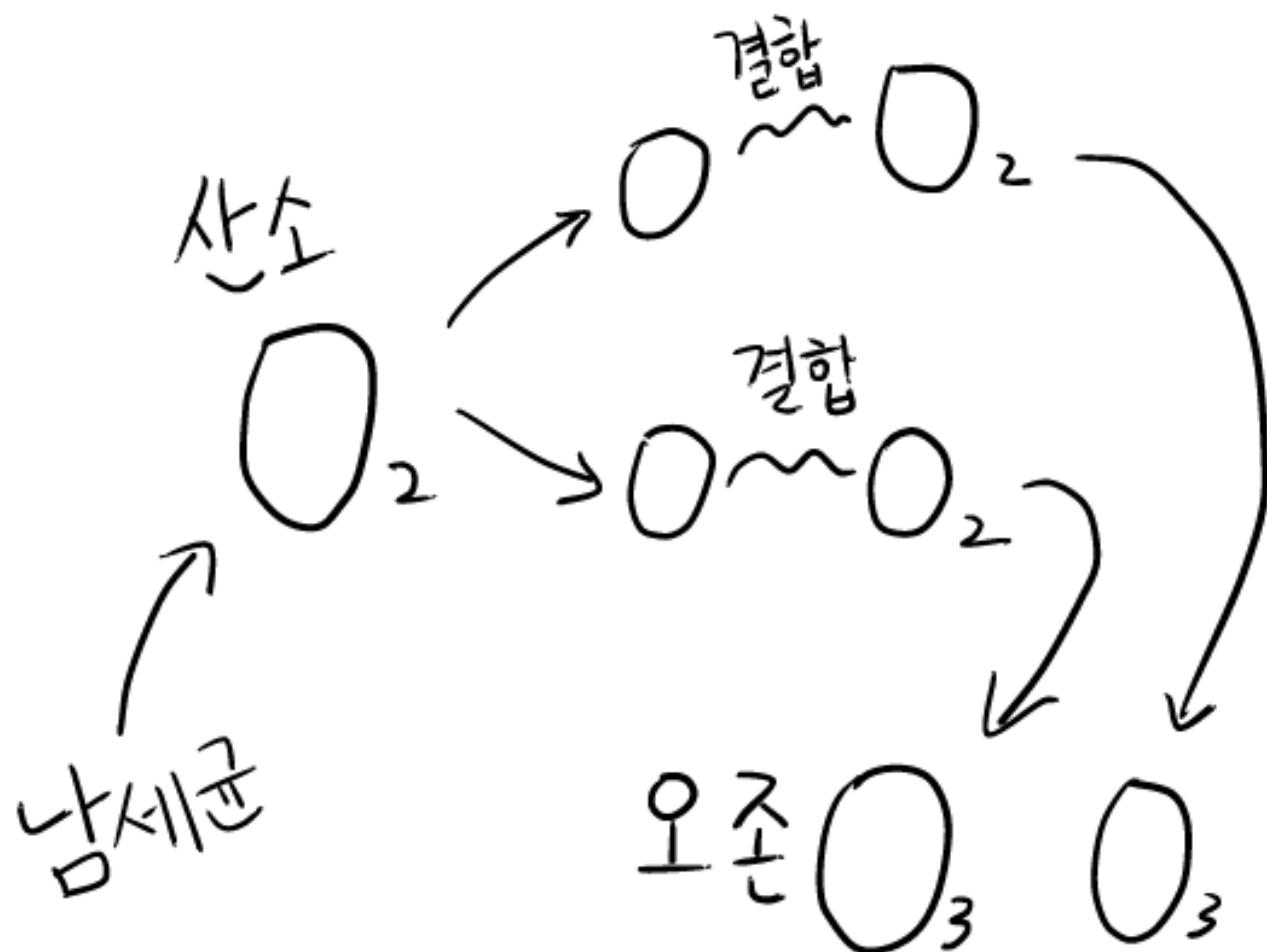
## 다섯번째 전시물



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오존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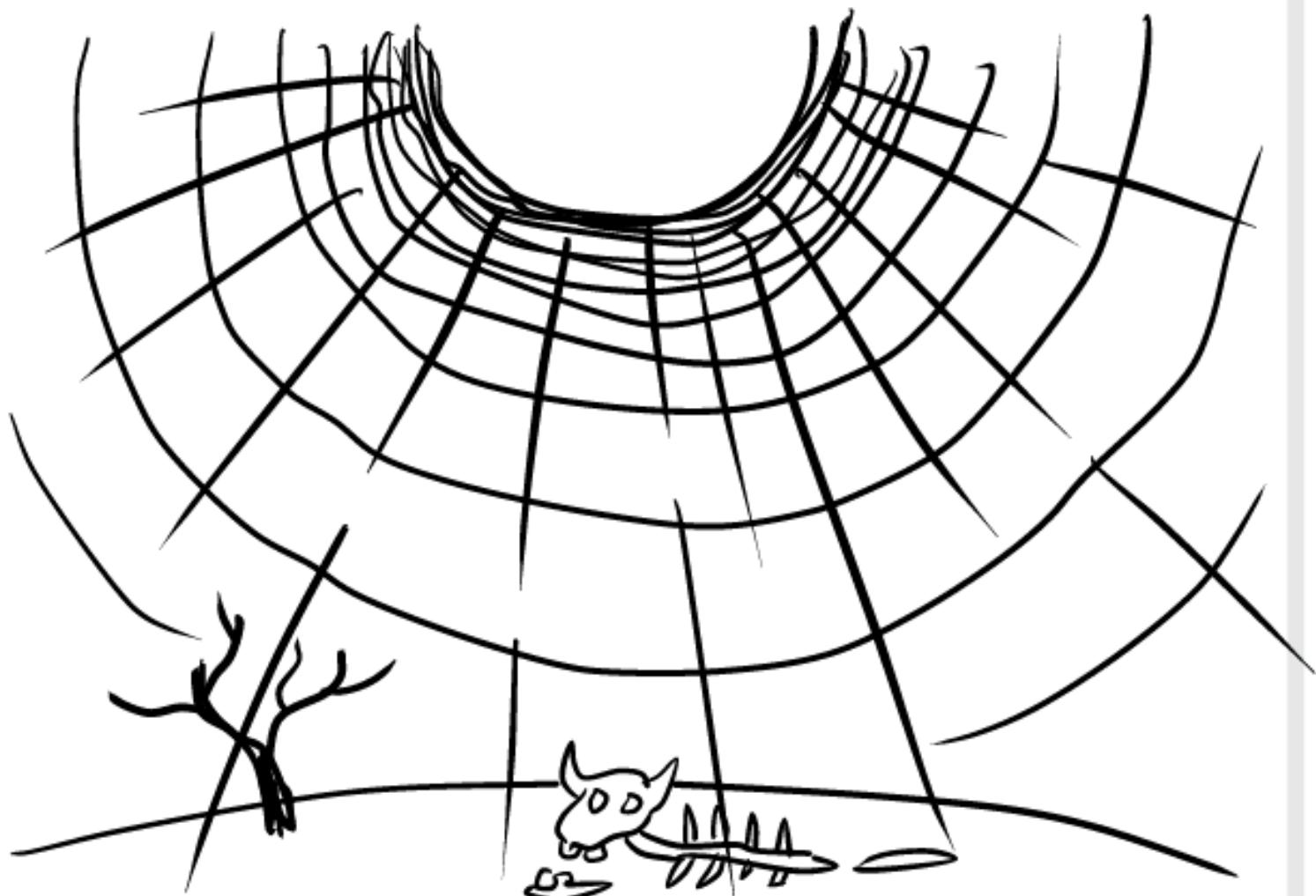


오존층도 산소 덕분에 생겨났죠.



오존층이 없었다면 강한 자외선 때문에

땅 위에 동식물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.



결국 땅 위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도  
남세균 덕분인 거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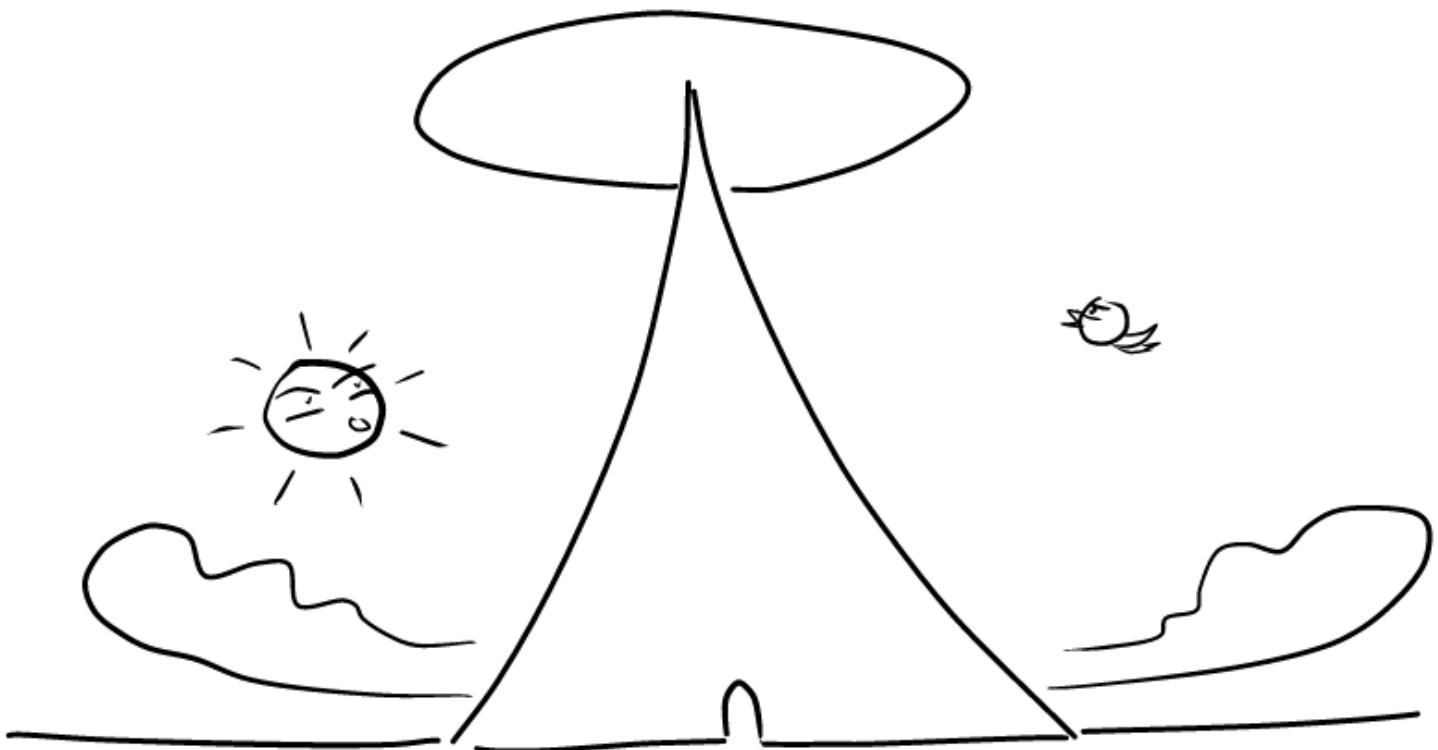


남세균이 없었다면

지구는 동식물도 없이

바다 속에 세균들만 사는 행성이 됐을지도





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세균이  
세상을 떠받치고 있다는 의미에서  
기념관도 저렇게 만든 거지





이제 알겠어?

그런데 말이야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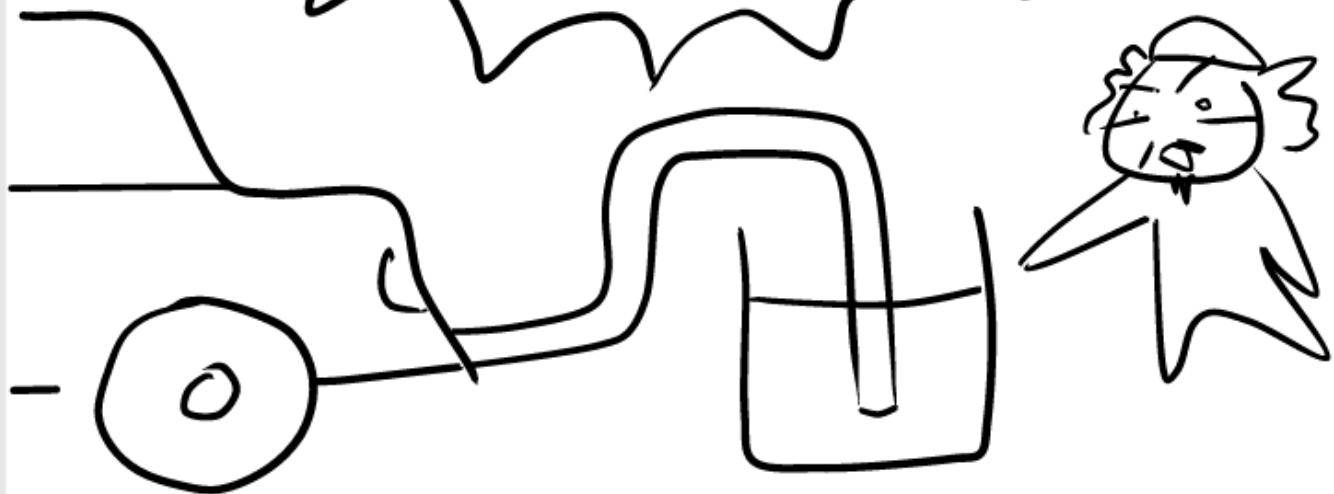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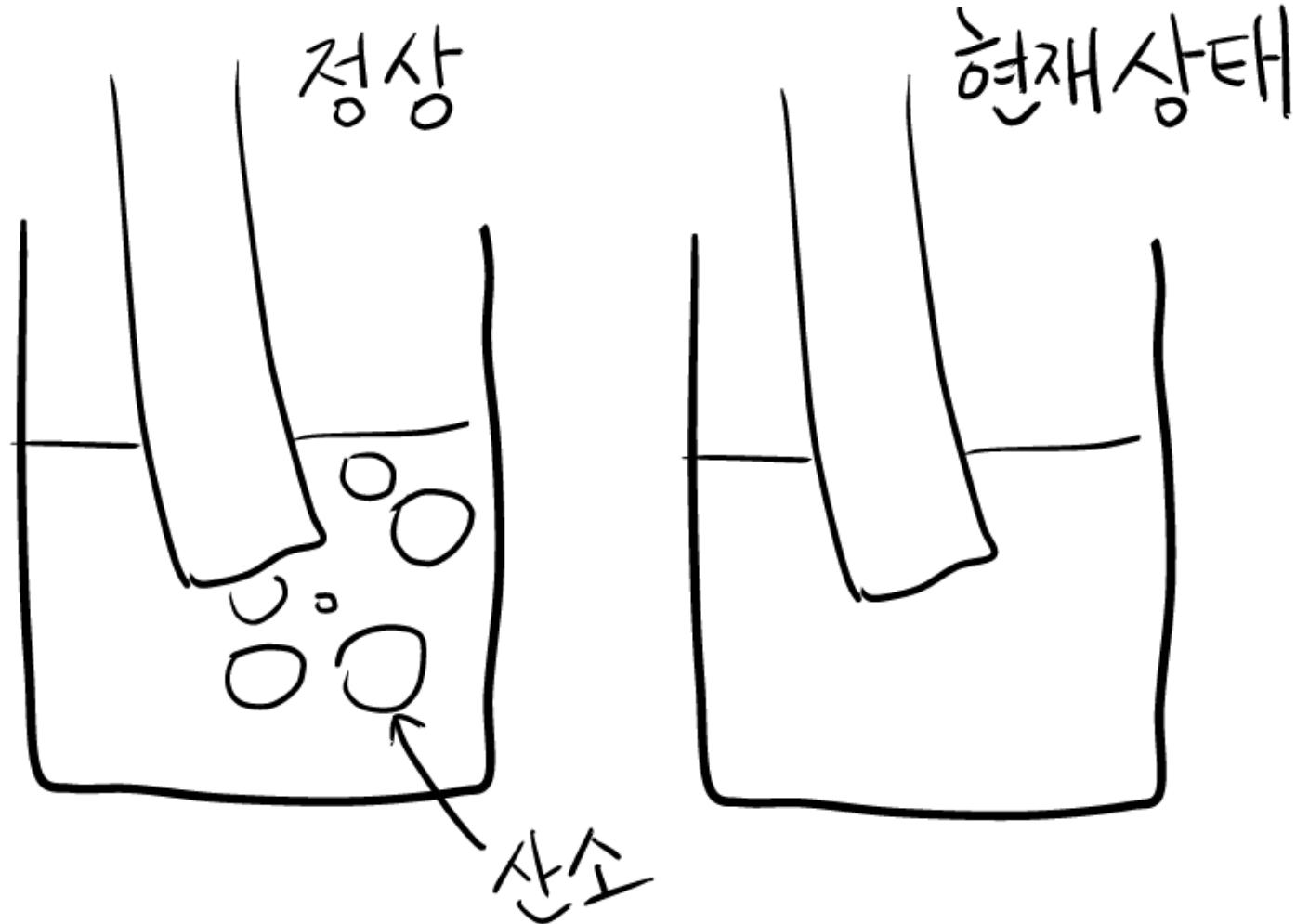
방가드레났어!



산소가 안나와!

산소가!





딱 요것만 고장내놨더라고...



도대체 왜?

누가?







내가 탐정도 아니고  
그걸 어떻게

그건 어디까지나  
내 일이기도 하지

본인 주장으로는  
별명이 남설록



o o 양 양 o







저분은 지구셔... 좋을 땐 한없이 좋다가도  
나쁠 땐 그보다 더 무서울 수 없지  
종잡을 수가 없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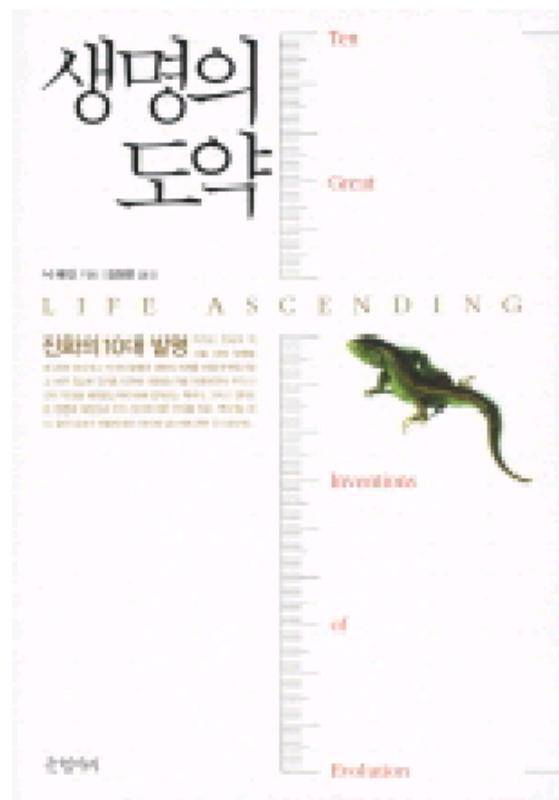


동에 번쩍 서에 번쩍이라  
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고

빨리 다음 사건 장소로 갑시다.  
바빠요. 바빠



# 참고한 자료



창조와 생물의 공진화로 푸는 지구의 역사  
평면지에서 살고 있는 수은 행성까지, 지구는 진화한다.  
또 생명체의 영적 진화 사이의 반응이 지구 환경의 모기장을 낳고 그 모기장에서 특별한 물질을 이용해 공장을 그려 2.5억  
년의 생계으로 절로 활터, 화려한 사막과 대漠, 산수의 길을 그리고 농경마-온실 지구의 출현을 겪으며 지구는 절대  
없이 진화했듯이, 이 책은 지구들이며 생물이며 환경-환경학과 물질의 궁금증을 푸는 뛰어난 품질의 지구 진화학!

